

교회목표

1. 천국일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18:1)

주강충현

발행인 : 이 종 윤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 화 : 552-8200 FAX: 552-2925

사서함 : 영동우체국 1896호

91년도 목회 지침 : 모범적인 교회 생활 지표 :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사회복지법인 충현복지원 설립인가 받다 빈약한 자 구제에 활성화 기대

사회복지법인 충현복지원이 지난 3월 6일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우리 교회는 법인 설립을 위하여 당회에서 설립 취지 확정, 정관 심의 등 법인 설립에 관한 사항들을 결의하였다.

앞으로 충현복지원은 병들어 소외당하고 지체가 부자유하여 냉대와 질시를 받으며, 세상에 태어

난 것을 한스러워하는 이웃들을 돌보게 될 것이다. 즉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찾아가, 삶의 보람과 희망을 심어주고, 국가와 민족 사회와 교회에 감사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마련해주며, 지속적이고 아가페적인 사랑을 베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충현복지원은 이러한 원대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하여 충현복지마을과 사랑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사랑의 집이 완공되면, 유아원, 유치원, 무료진료소, 상담실, 경로당(경로대학)을 개설한다. 뿐만 아니라, 하루 속히 충현복지마을도 기공하여 장애인들을 위한 장기적 교육과 은퇴 여교역자들을 위한 복지 사업을 전개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제3차 올림픽 표어 공모 3월 24일까지

오는 5월 21일 올림픽 제1체육관에서 개최기로 한 제3차 충현올림픽이 충현의 모든 성도들의 관심과 기대 속에 준비되고 있다.

충현올림픽집행위원회(위원장 우기전 장로)는 개최 장소가 올림픽 제1체육관으로 확정된 이후, 그곳을 답사하였다.

한편 올림픽에 충현 교인들의

참여와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표어를 모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접수는 3월 24일까지 사무국 행정과에서 받는다. 집행위원회는 당선작 한 점, 가작 두 점을 선정하여 오는 4월 7일 본지에 발표할 예정이다. 제2회 충현올림픽의 표어는 "하나로! 세계로! 주께로!"였다.

장애아동조기교육원, 유치원 입학식 가져



우리 교회 부설 장애아동조기교육원과 유치원이 3월 초에 입학식을 가졌다.

장애아동조기교육원(원감 이동귀 집사)은 5일, 학생, 교사, 학부모가 참석한 가운데 입학예배를 드렸다. 조기교육원은 금년부터 새로운 교육 장비를 도입하여 효과적인 조기 교육을 실시한다.

한편 지난 7일 입학예배를 드린 유치원(원감 정지자 집사)은 67명의 신입생과 25명의 재학생들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교육해 나갈 계획이다.



믿음의 가족들에게 드리는 사랑의 편지

사랑하시는 K 성도님,

한 쪽 다리를 절단하고 병원 침상에 누워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는 성도님의 애통한 심정을 전해 듣고 달려가 위로하지 못하는 목자의 안타까운 심정을 서면으로 전하며 위하여 기도합니다. 종이 보내드린 병상카드를 머리맡 탁자 위에 세워 놓고 반가워하며 종을 보듯이 한다는 성도님의 너그러운 마음과 사랑에 감사하며, 곤비해진 양들을 일일이 돌아보지 못하는 종의 무력을 자책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위로와 은총이 성도님과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며 새벽마다 기도드립니다.

육신은 깨어지기 잘하는 질그릇이요, 형체도 변하기 쉬운 수포와 같아서 인생 중에 누가 자신의 건강과 수(壽)를 자랑할 자 있겠습니까. 연약할 때 주님만 바라보고,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마음의 고통으로 시련을 주시면서도 마음에 확신과 용기를 심어 주시기를 잊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다함없는 사랑에 감격할 뿐입니다. 주님의 무한한 사랑 안에 주소를 확고히 하는 것밖에 인생이 할 일이 또 있겠습니까.

잃어버린 다리를 주님이 받쳐주실 것이요, 상처난 가슴에 주님이 치유의 은총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목장(木丈)을 쪼고서라도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한 다리 뻗고라도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리라는 각오를 새롭게 하실 때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성도님을 위한 구역원들과 교회의 기도가 있음을 잊지 마시고 하루 속히 쾌유하셔서 퇴원하시는 그날까지 말씀 안에 편히 거하시기를 기도합니다.

3. 10

이 종 윤 목사

전도위원회 재현교회 지원기로

우리 교회 전도위원회는 재현교회의 예배당과 사택 수리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경기도 연천군에 소재한 재현교회는 지난 1월 한용관 강도사가 부임한 교회로 현재 출석 교인은 성인 30명, 학생 25명이다.

우리 교회의 지원에 힘입어 한 강도사와 재현교회 교인들은 인근의 120여 가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전도를 전개하면서 지원 복음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91년도 장학생 선발 17일 찬양예배시 장학 증서 전달

우리 교회 장학회(회장 최대원 장로)는 91년도 제1학기 장학생들을 선발하여 그 명단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금년부터는 장학 사업의 발전과 개인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장학금을 '충현장학금', '소석장학금', '위탁장학금'으로 분리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충현장학생은 28명, 소석장학생은 15명, 위탁장학생은 4명이다.

장학 증서는 오는 17일 저녁 7시 찬양 예배 시간에 전달될 예정이다. 장학회는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들이 17일 저녁 6시 30분까지 본당으로 모이기를 바라고 있다.

◆충현장학생

이준우 이정은 이미리 조성희 안광영 김정호 오정성 김경희 박충열 홍경호 전정구 정문지 신익수 김훈정 김선화 이요한

박동석 왕승원 홍준석 임필아 윤정미 구혜경 홍성욱 김정직 황가영 강선미 고유미 권오준

◆소석장학생

황옥진 송준업 이재호 박성곤 이현주 김현정 정윤성 최경아 송민선 정재용 김성욱 장연순 이오복 최연희 서일우

◆위탁장학생

박상현 김미성 박경현 이상권

아담반 15일 개강

성경연구원의 아담반 수업이 오는 15일(금)부터, 매주 금요일 새벽기도회를 마친 후, 만나홀에서 진행된다.

이종윤 위임목사가 강의하며, 수업을 마친 후에는, 출근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남전도회가 주관하여 육신의 만남을 나누면서 교제를 나누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성경연구원은 남성도뿐 아니라, 여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고 있다.

아담반의 한 학기 수강생들은 3백여 명 정도에 달하며 타교회 교인들도 수강하고 있다.

에바다부 수화 교육 실시

에바다부는 농아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과 사랑을 증거하기 위한 수화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기간 : 3월 30일~6월 8일

●과정

초급반(월·목) : 김광식 선생
중급반(월·목) : 최성숙 선생
고급반(화·금) : 이준우 선생

●장소 : 소석관 109호

(에바다부실)



이 중 윤 목사

성경 강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 말라...” (요12: 12~19)

우리들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해 많은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하여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으며, 시험산에서 40일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3년 동안 일하셨고, 십자가를 지셨으며, 못박혀 죽으신 후, 3일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세상에서 지내셨고,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생애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는 높은 찬양을 받으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을 왕으로서의 입성이요, 승전장군으로서의 입성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예수님을 그렇게 높이셨다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왕이 되어주십시오.”라는 유대인들의 요청을 단번에 거절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왕이 되실 것을 거절하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마음을 바꾸시어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신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1.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많은 유대인들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본문 16절에 기록된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는 말씀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부르는 찬양의 내용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단지 예루살렘에 모여 있던 유대인들은 나사로의 죽음을 목격한 무리들의 증거를 듣고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히브리어 방언의 하나인 아람어로, “청컨대 구원하옵소서”, “부디 도와주시옵소서”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호산나”라는 찬송은 영광스러운 찬송이 아니고, 간절하게 애원하는 기도의 소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구주이심을 입증시키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을 깨뜨리시는 영적인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우리들을 구원하소서”라고 애원하는 유대인의 노래를 듣게 하신 것입니다.

2. 종려나무 가지로 환영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맞이하는 백성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가 들려 있었습니다(요 12: 13).

예레미야 23장 40절, 에스겔 41장 26절, 요한계시록 7장 9절 등의 기록을 살펴보면, “종려나무”는 성경적으로 “존경, 희열, 찬송”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를 외치면서 찬송을 부른 것은, 오늘날 예수님께 나아오는 우리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것입니다(마 21: 1).

당시에도 마차가 있었고, 마차를 이용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면, 걸어서라도 갈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겠습니까.

그렇다면 본문에서 나귀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로, 나귀는 왕의 상징입니다. 열왕기상 1장 33절부터 38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을 왕으로 추대할 때, 그를 나귀에 태웠습니다.

둘째로, 요한계시록 6장 1절과 2절에 의하면, 말을 타는 것은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시고, 죄악을 이기시며, 죽음을 이기시어 우리들을 구원하신 영광의 승리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승리의 표시로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셋째로, 나귀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이

살렘으로 가신 이유가 죽기 위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이를 전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예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의 당할 일을 일러 가라사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막 10: 32~35)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두번째 이유는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의 모든 발걸음은 움직였던 것입니다. 이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 본문 15절에 인용되면서 “기록된 바... 함과 같더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이 되어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여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는 “말씀에 붙잡힌 바 되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들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는 각오로 신앙 생활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기회는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택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에 출애굽 당시 어린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제앙을 모면했던 것을 기념하는 의식을 거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입성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어린양으로서 창자 피흘리시며 죽으실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본문을 통해서,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짊어지시고, 유월절의 어린양으로서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해야 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상하시고 쫓리시는 이유는 우리들의 허물과 죄 때문인 것입니다(사 53: 5). 예수님 없이는 우리들은 구원에 대한 여망(餘望)을 가질 수 없습니다. 주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버린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죽기까지 자신을 드린 주님

간접적으로 시사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사람들은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마음이란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예배에 임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배하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사람들은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셋째로,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사람들은 찬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찬양은 언제 부를 수 있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찬양이 나옵니다.

3. 나귀를 타신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요 12: 14, 15).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곳은 “감람산 뱃바게”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뱃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을 맞은 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셨던

것은 사사기 5장 9절과 10절의 기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화평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넷째로, 나귀는 겸손의 상징입니다(속 9: 9).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의 천박한 말구유에서 태어나시더니, 세상에서 사시는 동안에도 그 겸손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죽으러가실 때에도 겸손의 상징인 나귀의 새끼를 타고 가셨던 것입니다.

다섯째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은 예언의 성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의 “기록된 바”라는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의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는 예언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4.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첫 번째 이유는 죽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예루

■ 위원회를 찾아서 - 제3교육위원회

교육을 통한 선교와 구제를 기대



제3교육위원회는 학생들의 연령과 학년에 관계없이 갓난아이로부터 노인, 장애인, 외국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고 다양한 신앙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9개의 교회학교로 구성된 제3교육위원회는 다른 어떤 교회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특수 교육을 위한 교육위원회이다. 이것을 대상 학생별로 구분하여 보면, 어린이에 속한 교회학교가 탁아부, 유아원, 유치원의 3개 부서이고, 장애인들을 위한 교회학교는 사랑부, 에바다부, 장애아동조기교육원의 3개 부서이며, 노인들을 위한 교회학교는 سالم교로대학이다. 또한 외국인들을 위한 교회학교인 영어교육부, 일어교육부도 제3교육위원회 산하에 있다.

제3교육위원회의 교육 이념과 교육 목적은 우리 교회 교육 이념과 교육 목적에 따라 천국시민생활을 교육 이념으로 삼고 천국일꾼양성을 그 교육 목적으로 하여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과 외국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시민으로 육성하는 데 있다. 또한 특별히 장애인일지라도 사죄의 은총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희열이 넘치며, 구원의 확신과 삶의 의욕과 용기를 가지게 하며, 영생의 소망

을 가지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다.

특히 제3교육위원회 산하의 교육 부서는 사명감이 투철하고 사랑과 인내를 겸비한 성도들이 교사로 헌신, 봉사하고 있다.

앞으로 제3교육위원회는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또 다른 목표들인 선교와 구제에 관련된 사명도 감당하여 우리 교회의 세기들을 모두 다 감당하는 교육위원회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제3교육위원회는 매월 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하여 각 부서별로 교육 진행 사항을 점검하며, 사업 및 행사를 지도, 감독할 것이다.

교육위원회 차원으로 시행되는 행사, 즉 각종 교육 훈련과 교육 세미나, 행정 지도, 실무자 교육 등을 제1, 제2, 제3교육위원회로 구성된 교육위원회협의회에서 같이 의논하여 합동으로 실시하게 된다.

제3교육위원회는, 이와 같이 광범위하고 다양한 교육 부서로 구성된 제3교육위원회의 성공적인 운영은 인간의 힘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뜨거운 성령의 역사와 온 성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끊임없는 기도가 이어지길 바라고 있다.

■ 미래 지도자를 위한 대학생 복음화 대회 · 특강 II

미래 이력서

감사 이원 설 박사(한남대 총장)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에 대한 것입니다.

오리엔테이션이란 말은 바른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한다는 뜻인데, 바른 길을 가는 비결은 ‘먼저’ 구하라는 말에 있습니다. 먼저 구할 것을 먼저 구할 줄 아는 것이 대학 생활의 첫걸음입니다. 가장 필요한 것, 가장 먼저 구할 것을 1학년때 빨리 포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변하는 가치들을 피라미드화하는 가치 위계화의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개개인에게 재능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이 재능을 개발 확대하는 일 또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로 하여금 21세기에 지도자가 되게 하는 목표가 무엇인가를 잘 성찰하십시오. 그리하여 정말 원하고 기쁜 것을 선택하여 자기 능력을 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 구현을 멋지게 할 수 있을까요? 학업에 충실치 못하고서는 자기 개발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자기 개발에 전력을 다하기 위해 해선 미래 이력서를 쓰십시오. 목표를 세

우면 그 목표가 자기 내면화되어서 부지불식간에 실현됩니다. 또 목표를 세우면 집중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 집중력으로 찬찬히 미래를 내다보고, 일생을 길게 보아 시간을 뒤로 돌아보는 능력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자기 구현의 표적은 어디에 두고 행하는 것이 옳습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 실현을 추구할 때 모든 것이 우리에게 더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지배하는 환경, 하나님의 의가 실현될 수 있는 사회, 이런 사회를 만드는 데 우리의 사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정치, 경제, 교육, 모든 것에 있어 바르게 살아가는 의의 풍토가 조성될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가지 영역에서 자신을 확대 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모든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육체적 영역에서 좋아하는 운동 한가지씩으로 체력을 키우고, 사회적 영역에서 땅에 떨어지지 않는 말로 신뢰를 쌓고, 지식의 영역에서 교과서 이외의 책을 한 달에 5권씩 읽고, 영적 영역에서는 매일 성경을 읽고, 규칙적인 기도 시간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성도들은 갖가지 훈련을 통해서 영적으로 재무장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바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충현인의 영적 재무장을 위해 해마다 제자훈련을 실시하여 왔으며, 금년에는 3월 21일부터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충현기도원에서 실시합니다.

직분자들은 물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시민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절제운동본부
태동에 붙여

우 기 전 장로

충현교회 절제운동본부에서는 최근에 직분자(교역자, 장로, 안수집사, 권사 등 850명)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설문에 응답한 내용 중에서 몇 예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기로 한다.

응답자들은 절제에 대한 동의를 강하게 표현하고 있으며(83퍼센트), 자녀에 대한 절제 교육도 열심히 하고 있고(88퍼센트), 충동구매의 경험도 많지 않음을 볼 수 있다(있다 17퍼센트, 가끔 있다 29퍼센트). 결혼 혼수에 대한 설문에서 83퍼센트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축하화환을 없애야 한다고 하였으며, 75퍼센트는 혼수금액 한도를 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89퍼센트는 과다혼수를 불필요한 허영이나 자존심에

서 비롯된다고 응답하였다.

위의 설문 응답 내용으로 보아 충현교회 성도들의 절제 감각은 긍정적이며, 진취적이라고 할만 하다. 특별히 결혼 혼수에 대한 반응은 더욱 강도가 높다. 물질범람·사치고조·허영허욕의 세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으로서 이번에 실시한 절제 문제에 대한 의식조사 결과는 모범적인 그리스도인다운 우리의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밖에 우리 교회 내에서 실제 절제대상으로 꼽을 수 있는 것으로, 전기, 수도물의 절약, 인쇄물의 배람 및 고급용지 사용 억제, 폐품의 활용, 제작들의 지나치게 화려한 의상착용 억제, 식당에서의 점심(국수) 절제, 예배 시간에 지각 안하기 등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항목들이 지적되고 있다.

절제운동은 일회적인 캠페인과 같은 것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대구나 누구의 명령이나 지시로 성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절제운동은 온 교인의 총의(總意)로서 추진되어야 하며 권교인의 참여로써만이 성공할 수 있는 운동인 것이다.

우리가 절제운동을 중시하는 이유는 절제운동은 성령의 열매맺기 운동이기 때문이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화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라고 하였다. 즉 절제는 성령의 열매인 것이다. 또 절제운동은 윤리·도덕성 회복운동이다. 우리 나라는 짧은 기간에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룩하였으나, 거기에 합당한 정신문화는 따라가지 못하였으므로 각종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절제운동을 통하여 건전한 정신문화가 꽃피어야 할 것이다.

차제에 우리 교회의 “절제운동”을 간략히 소개하여 보기로 한다.

우리 교회는 90년 6월에 실시한 제3차 흥해작전의 주제를 2000년대를 향한 천국시민 생활운동으로 정하고 실천강령으로 “힘을 다해 절제하자”고 하였다. 그래서 흥해작전을 마치고 계속적인 사업으로 충현교회 절제운동본부를 설치하였다. 본부장에 이종윤 위임목사를 추대하였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최근에는 열심있는 청년들로 실행위원회를 조직하여 전반적인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우리가 절제운동의 당위성을 인정한다면 모범적인 교회를 지향하는 91년도를 출발하면서 성공적인 절제운동을 통하여 절제와 그리스도인의 윤리, 도덕성을 재고함에 앞장서야 하지 않을까.

다음호 세기통은 이영세 장로님께 부탁드립니다.

간증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윤 봉 준 집사

어부의 아들로 조그마한 섬에서 태어나 무척이나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다. 아버지는 나를 어부로 키우시려 하셨지만 심한 멀미로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셨다. 그토록 하고픈 공부를 계속하지 못하고 중도에 기계 제조 기술을 숙련하다가 입대하여 68년 4월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하였다. 제2의 고향 부산에 있던 전 직장에 복직하여 근무하던 중, 어느 분의 알선으로 70년 봄, 서울로 올라와 72년에 본 충현교회에 등록하였다.

서울에 올라와 좀처럼 생활이 안정되지 못하였다. 게다가 70년 초, 에너지 파동으로 더욱 어려움이 겹쳤다. 74년에 결혼하여 어머니와 동생 넷과 집사람과 나는 두 칸짜리 사글세방에서 근근히 살아갔다.

그러던 어느날, 본 교회(구성전)는 예배 장소가 협소하여 성전을 크게 건축 하기 위해 건축현금을 드리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나로서는 박봉으로 생활비도 모자라니 감히 엄두도 못낼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렇지만 앞드려 기도할 적마다 벽돌 몇 장이라도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는 마음이 점점 불붙기 시작하였다. 그 당시 어머니는 동생을 직장 근처로 이사를 가셨다. 며칠 후 집사람과 의논하기를 몹시 어렵게 한꺼번에 현금하기는 어렵지

만, 3년짜리 적금을 부어서라도 건축현금을 드리기로 결정하였다. 내 이름으로 10만원, 아내 이름으로 10만원, 딸(당시 둘 지난 은숙) 이름으로 5만원, 임신 중인 아기(요셉, 현재 중2학년) 이름으로 5만원, 모두 30만원짜리 적금을 시작하고 매월 불입을 해나갔다. 몇 달 동안은 생활이 좀 조들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축복하여 주셨다. 직장에서도 실수 없이 건강도 더욱 주셨다. 빠른 속도로 승진하여 더 많은 수입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다. 그리하여 3년간의 적금도 무사히 다 불입하였으며, 2차, 3차 건축현금을 더 드릴 수 있게 되었다.

그 동안 약간의 저축도 하여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좀더 넓은 전세방을 구하려 성남시로 가던 중 현재 가락동 농수산 시장 앞 작은 기와집들이 즐비한 동네에 들리게 되었다. 전세금으로 7평짜리 집을 살 수가 있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집을 산 후 약 4년이 지나자, 재개발 조합이 결성되어 19.5평 아파트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

그 동안 나는 라면 업체에 기계 부속을 제작하여 납품하여 왔다. 이제는 라면스프 포장 기계를 기도하며 국산화를 이루하여 해당동에 조그맣게 자영하다가 성수동 좀더 넓은 장소로 이사를 하였

다.

종전 공장이 너무 협소하여 몇 개월 후, 신축 중인 건물 1층에 세들기로 계약을 하였다. 몇 일이 지나 건물 주인이 나에게 그 건물을 사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그 건물을 사려면 절반 이상 돈이 부족하였기에 자신 있게 확답을 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몇 일 전, 계약 때 '나에게 이런 집 주신다면, 구역 권속들을 모시고 예배드리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생각났다. 건물 주인에게 사실대로 말하였다. 그럼에도 건물 주인은 있는 대로 지불하고 나머지는 어음이라도 생기면 지불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 집을 계약하고 약속날짜보다 훨씬 빨리 대금을 지불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집을 계약한 후 몇 주가 지나 많은 일을 계약토록 축복하여 주셨다. 그리하여 그 집 잔금을 지불할 당시 성전건축 현금도 더 드릴 수 있도록 물질을 허락하여 주셨다. 새 성전 시대가 도래하여 입당예배를 88년 7월에, 우리는 새 집으로 2개월 후인 9월에 이사하고, 감격의 헌당예배를 그해 12월에 드리게 되었다. 종으신 우리 하나님은 새 성전 건축을 하게 하시고, 이 위대한 역사에 지극히 적은 정성이지만 감사함으로 참여케 하시어 전혀 생각지 못했던 것으로 축복해주셨다. 여호

독자의 난

빛으로 오시는 당신

하늘가 바라보며
서서히 무너지는 고독함

시리도록 별 빛 소리에
아파와
안개처럼 눈물이 흐려져

그대로 빛으로 향한
마음

아련히 쏟아지는 당신 모습에
가늘이 떨리는 눈물방울

영혼인듯
목숨인듯
전부인듯

한덩이 빛으로 채워지는
당신

땅의 소산으로 얻매인 욕심에
머나먼 타인이었던
영혼에게

빛으로 오시는 당신

한줄기 인고(忍苦)로 쏟아져
기다리며 부서지는 빛

오직 사랑해야만 했던 그 빛
당신

이제 아프도록 젖어드는
빛줄기 속에
그윽히 밀려드는 사모침

영원히
영원히 눈물로 바치는 생명

백원욱 학생

와의 별개를 맨 제사장들이 믿음 지 찬양하신 하나님께, 우리 영으로 요단강물을 밟았을 때 강물 혼도 육의 필요한 것으로 넉넉히 부어 주심을 체험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3. 가나안 땅의 분배와 정착(수 13:8~24:33)

많은 지역들이 아직 미정복된 상태로 남아 있었지만,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 동편에, 그리고 나머지 지파는 서편에 각각 정착하였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는 기업을 갖지 않았습니다.

4. 결 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 나라를 건설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믿음으로 전진해야 하며, 거룩해야 함을 보여주십니다. 나아가서 자기 백성을 사용하시며 범죄한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동시에 믿는 자들에게는 축복하심을 보여주십니다.

문 답

1.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슨 약속과 명령을 하셨습니까(수1:1~9)?
2. 아이성 전투에서 왜 실패하였습니까(수7:11~12)?
3.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한 마지막 부탁은 어떠합니까(수24장)?

토 의

1. 지난 주일 설교 말씀이나 읽은 성경 말씀 중에서 깨닫고 결심한 것을 이야기해봅시다.
2.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받은 은혜를 나누어봅시다.

제 도

1. 강하고 담대한 신앙 생활을 위해 기도합니다.
2. 목회자 세미나, 제자훈련, 중현복음심포지움을 위해 기도합니다.

현대라방

제 11 과 약속의 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본문: 수 1:1~9

찬송: 382, 384

본문연구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 가나안 정복을 위한 준비(수1:1~5:15)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재확인했으며, 정탐꾼을 보냈고, 요단강을 건넌 기념비를 세웠고, 길갈에 본부를 정하고 할례를 시행하였습니다. 즉 영적, 도덕적, 군사적, 육체적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속했음을 고백하였습니다(수5:13~15).

2. 가나안 정복(수6:1~13:7)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정복을 시작으로 먼저 중부 가나안을 정복하였고(수6:1~8:35), 이어서 남부와 북부로 정복하였습니다(수9:1~13:7). 군사적으로는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 그들이었지만, 믿음으로 정복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 건설을 위해 효험이 있는 자는 다 전멸되었습니다(신 20:16).